

8 사람



이승민 동문(사진 왼쪽에서 두번째)은 “스스로를 믿고 꿈으로 나아가세요. 그건 반드시 이뤄져요”라고 조언했다.

(사진=이 동문 제공)

상대적으로 어렵다. 이 동문은 “교과서에서만 보던 환자를 직접 보며 치료하고 연구해요”라며 의미를 새겼다. 문화, 인종, 체질의 차이도 행복한 숙제다. “어떤 논문을 들춰봐도 안 나오는 사례들에 한의학을 적용한 뒤, 성공하면 너무 기뻐요.”

자연스레 높아진 이 동문의 인기는 다양한 분야의 치료 제안으로 증명된다. 이 동문은 “요즘은 통증 치료뿐 아니라 소화불량, 감기 치료도 부탁한다”고 말했다. 이 동문에게 해외 한의사 생활은 자신만의 임상과 연구 분야를 넓혀가는 기회이기도 했다. 그 결과, 코리안메디컬센터의 정형외과, 치과, 성형외과 등 10여 개의 진료과 중 한의학 환자 수가 톱3 안에 든다. 이 동문은 “자주 보지 못한 한의학 ‘닥터’라는 타이틀에 환자 분들이 관심을 가지세요”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.

한국 출신 한의사 ‘전문성’ 어필로 인식개선

타지에서 성공한 한의학 인식 개선은 우연이 아니었다. 이 동문은 연구를 진행하며 외국인이 한국 출신 한의사의 전문성과 경력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. 이에 경력을 쌓아야겠다고 다짐한 이 동문은 대한여한의사회, 동의보감아카데미, 위킴팜 앤 더 시티 등 다양한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했다. 이러한 열정으로 보건복지부 표창과 미래인재상을 받기도 했다.

이 동문은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한의학 교육 경험 역시 해외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. “한국 한의사의 공부량, 양방 의사처럼 인턴과 레지 생활을 한다는 사실도 어필 지점이지요.” “지금 한국인의 세계적 입지는 제가 어릴 적 포르투갈에서의 겪은 차별이나 8년 전 미국 탐방에서 느꼈던 한계와 완전히 달라요.” 이 동문은 한국의 이미지가 과거와 확실히 다를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.

한류의 세계화 ‘나’의 세계화

우리학교 동문을 위한 조언으로 이 동문은 송 교수의 말을 다시 언급했다. 이 동문은 “저도 아직 ‘한의학의 세계화’의 길을 걷는 입장일 뿐이지만, 모두 각자의 꿈을 꾸길 바라요. 스스로를 믿고 꿈으로 나아가세요. 그건 반드시 이뤄져요”고 말하며 꿈을 꾸는 모든 우리를 응원했다.

이 동문의 도전 성과는 한의학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다. 특히 자신의 한계를 강점으로 승화시켰다. 모든 발걸음이 한의학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의 이 동문의 도전을 응원한다.

# 카타르에서 꽃 피운 한의학

## “한국에서 받은 한의학 교육이 큰 도움돼”

김규연 기자 imgonnadoit@khu.ac.kr

카타르 최초의 한의사 이승민(한의학 2005) 동문

# 한국 문화를 향한 세계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. 로제의 ‘아파트(APT.)’는 미국 빌보드에서 10주 연속 상위권을 기록했고, ‘오징어 게임 시즌2’는 전 세계에서 4.9억 시간 동안 시청되며 공개 첫 주 기준, 가장 많이 본 콘텐츠로 선정됐다. 이렇게 한류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가운데, 한의학의 세계화를 꿈꾸며 카타르 최초의 한의사가 된 이승민(한의학 2005) 동문을 화상으로 만나봤다.

한의학 세계화 위해 외국인 대상 연구 진행

이 동문은 포르투갈에서 유년기를 보냈다. 하지만 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자랐다. 안정을 추구하기보다 도전을 택했던 그는 우리학교 한의학과에 입학하며 한의학 세계화를 목표로 삼았다. “안

정적인 국내 한의사도 좋지만 매일 새로운 도전이 생기는 해외 한의사 생활을 더 하고 싶었어요.”

2011년 이 동문은 졸업했다. 하지만 당시 한의학은 대부분 서양 국가에서 인정받지 못했다. 조사 차원으로 방문한 미국에서 이 동문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. “한의사를 마사지사 같은 직업으로 아는 분도 있었어요”

하지만 이 동문은 포기하지 않았다. 졸업 당시, 송미연(한의학) 교수가 말해준 ‘지금 꿈꾸는 게 있으면 크게 꾸라, 무조건 이루어진다’는 문장을 가슴에 새겼다. 한국으로 돌아온 이 동문은 한의학을 향한 해외 인식을 바꾸려 외국인 대상 연구를 진행했다.

여성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

해외 진출의 기회를 기다리던 중 이 동문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. 카타르 내 최초의 한국 병원인 코리안메디컬센터(Korean medical center, KMC)에서 한의사를 모집한다는 것이다.

“보수적인 문화일수록 여성 한의

사 수요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.” 이 동문은 여성 한의사로서의 장점을 카타르 생활에서 발견했다. 이슬람 국가에선 문화적, 종교적 이유로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를 진료하거나 신체를 촉진하는 데 제약이 있어 여성 한의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.

하지만 신체적 특징에서 오는 차이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다. “거구의 환자를 들어 올리지 못해 치료를 어려워하던 기억이 나요.” 그럼에도 이 동문은 여성 한의사만이 할 수 있

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다. 이 동문은 아이를 낳고 키우며 그 답을 얻었다. “임신과 출산, 육아를 직접 겪어본 여성 한의사들이 이 분야의 치료에 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” 임신, 출산 경험이라는 강점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켰다.

이 동문은 카타르에서 한의사로 지내며 매일 새로운 도전을 마주한다. 카타르에는 지방에서 염증이 발생해 통증을 일으키는 지방부종 환자가 많다고 한다. 한국에서는 잘 찾을 수 없는 질병이라 임상과 연구가



이 동문은 카타르 최초의 한의사가 됐다.

(사진=이 동문 제공)